

"이젠 일상으로"... 경기 'DMZ RUN' 2년 만에 열린다

입력 2021-11-01 10:39



경기 DMZ 자전거 대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비무장지대(DMZ)를 달리며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경기도의 대표 스포츠 축제 'DMZ RUN'이 2년 만에 열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0-21일, 27-28일 파주, 김포, 연천 등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2021 DMZ RUN'가 개최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될 뻔 했으나, 정부의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발표에 따라 2년 만에 열리게 됐다.

올해는 DMZ 155마일 걷기, Tour de DMZ(자전거대회), 평화통일마라톤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자전거대회와 평화통일마라톤은 8차례, DMZ 155마일 걷기는 4차례 각각 열린다.

DMZ 155마일 걷기는 군사분계선 길이 155마일을 달리면서 금단의 땅 DMZ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험한다. 김포, 파주, 연천 평화누리길에 각각 마련된 코스 중 걷고 싶은 길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평화통일마라톤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해 '9.19km 코스'(임진강변)와 '4.27km 코스'(언택트 레이스)로 나눠 구성했다. '평화'를 주제로 열릴 자전거대회는 초·중·고급 중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기부금 2만원을 더해 3만원이다. 참가자에겐 1만 원 상당 기념품을 제공한다. 해당 참가인원은 자전거대회, 평화통일마라톤 최대 49명, DMZ 155마일 걷기는 최대 499명이다.

도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회는 2차 백신접종 완료자나 경기 전 PCR 검사 48시간 내 음성 확인자만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